

유성엽(국민의당) 의원 답변 전문

뉴스타파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다른사람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 귀 사로부터 의혹제기를 받은 뒤 성실하게 13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제기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발간한 자료집이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물과 상당부분 일치 또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먼저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당시 작성을 도와주었던 보좌진은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작성이 된 정확한 연유를 파악하지는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표절과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 : 앞서 말씀 드렸듯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정책자료집이 비매품이다 보니 표절과 저작권법의 위반에 대한 이견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법 여부를 떠나 남의 노력을 아무런 허락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 불찰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 다른 사람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 : 남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제가 만든 자료이고자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에 네거티브형 규제를 풀어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마침 자료집에 실릴 보고서의 내용이 훌륭하고 논리가 정연하여 국민들에게 소개를 하고픈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타인의 연구성과물임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개별 정책자료집마다 집행된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답 : 당시 보좌진 중 회계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정책 자료집 발간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퇴사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관련 비용을 집계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구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반납할 의향이 없는가?

답 : 정확한 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6. 여러 의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현상인데, 의정활동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답 : 사실 이 자료집이 발간된 시점과 지금은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은 예전에 비해 많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과 정책 자료집의 내실있는 발간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

답 : 그 동안은 정책 자료집의 발간에 대한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이를 통해 좀 더 투명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